

동화극으로 재탄생 '동개비' 전국 10곳 어린이들 만난다



광주정보문화진흥원 지원 제작
현악 앙상블·샌드아트 결합
18일 광주장산초 등 순회공연

광주시 남구 양림동을 대표하는 캐릭터 이야기배달부 '동개비'가 이번에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정현)의 지원을 통해 제작된 애니메이션 '이야기배달부 동개비'가 동화음악극으로 재탄생해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공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동개비'는 지난 2014년 탄생한 양림동 토종 캐릭터다. 400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지금까지 동화책, 다양한 상품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동개비'는 양림동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서 출발했다. 조선시대 양림동에 살던 선비 '정엄'은 한양까지 문서 수발을 다닐 정도로 영특한 개 한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한양에 다녀오던 개는 전주 즈음에서 새끼 9마리를 출산한다. 모성애가 강한 개는 9마리 새끼를 한 마리씩 물어 나르다 지쳐 죽고 만다. 이후 정엄은 충직하고 모성애가 깊은 자신의 개를 위해 비석을 세웠다.

동화음악극 '이야기배달부 동개비'는 (주)스튜디오 피쉬하이커에서 제작했으며 지난 2017년 지상파를 통해 방영한 동명의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어린이 대상의 공연물로 다시 제작했다.

'개비(GABI)'라 이름 붙인 캐릭터는 9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이야기배달부 동개비' 공연 모습.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제공>

마리 새끼 중 한마리를 모티브로 했다. '동'이라는 이름에는 아이, 겨울, 움직인 등 다양한 의미를 담았다. 엄마 개가 문서, 상소문 등을 배달했다는 이야기에서 착안, 강아지에게도 '배달' 임무를 맡겼다. 동네 사고뭉치 '동개비'는 시시 콜콜 동네 일에 참견하며 배달에 나서고 수줍은 당신을 대신해 사연도 전해준다.

동화극연과 현악 앙상블, 샌드아트로 구성된 동화음악극 '이야기배달부 동개비'는 지난해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초연돼 큰 호응을 얻었으며, 우리 지역의 청년작곡가 이승규

와 지역의 배우, 음악가 등이 함께해 더욱 의미가 깊은 공연이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전국공연은 지난 5월 28일 충북 부용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광주 남구 장산초등학교(6월18일), 강원도 송화초등학교(7월9일), 경남 거제시립하청도서관(7월27일), 구례군 두드림지역아동센터(8월17일), 경남 진주시 한국남동발전빛뜰어린이집(9월10일), 서울 은평종합사회복지관(10월15일), 경기도 파주시 금산초등학교(10월29일) 등 전국 10개의 초등학교, 아

동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이야기배달부 동개비'는 또 양림동을 거점으로 동개비 동화극연, 동개비와 함께 하는 숲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업체들과 교류를 통해 캐릭터 관광, 라이선싱 사업 등으로 활용 방안을 넓히고 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정현 원장은 "지역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제작한 콘텐츠들이 보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확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향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전은재 기자 ej6621@

'목민심서 200주년' 다산학 가치 조명

박석무 등 '다산학 공부' 출간



다산은 경학을 수기로 삼고 경제학으로 치인을 도모했다. 경학이 본이며 경제학이 말이다. 양자를 모두 갖춰야 수기치인의 학문이 완성된다는 것이

다산 정약용은(1762-1836)은 18세기 후반을 살다 간 인물로 정조의 치세를 도와 조선 후기 문예부흥을 이끌었다. 한강에 배다리를 개설하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 걸쳐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아이러니하게도 생애 후반기, 즉 18년간의 유배기간에 완성됐다. 강진 유배시기에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집필한 것이다. 당시 이룩한 학문적 결실은 200년이 지난 오늘날 '다산학'이라는 학문으로 자리매김했다.

'목민심서' 저술 200주년을 맞아 다산학(茶山學)의 현재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산학 공부'(둘째개·사진)가 다산연구소에 의해 출간됐다.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김태영 경희대 명예교수, 이광호 전 연세대 철학과 교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등 다산학 연구자 14명이 참석했다.

다산학의 양대 분야인 경학과 경제학은 본래 공자의 학문에서 유래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람이 배워야 할 학문으로 수기(修己)에 힘쓰는 '위기지학'(爲己之學)과 치인(治人)에 힘쓰는 '위인지학'을 이야기했다.

다산의 생각이다.

책은 모두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경학'에서는 사서삼경을 다룬 다산의 저작을 소개했다. '주역심전', '논어고금주', '소학보전' 등 경집 232권의 결과물에 대한 개념과 사상 등을 소개하고 풀이했다.

2부 '경제학'에서는 다산의 대표 저서인 일표이서를 다뤘다. 경제유포, 목민심서, 흠휼심서가 바로 그것이다. 저자들은 다산의 시와 논설 그리고 실학적 독법을 덧붙였다.

다산연구소는 "조선 후기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술을 한 권의 책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며 "다산을 전공하지 않은 타 분야 연구자에게도 다산을 공부하고 싶은 일반 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입문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텍스트와 나는 대화...전해수 평론집 '비평의 시그널'

"비평의 눈과 입과 손은 어디에 두고 '시그널(signal)'인 것인가. 유능한 재단사처럼 센터를 재고 자르고 마음잡는 일은 나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해온 비평은 그저 '텍스트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그것을 나는 '시그널'로 명명해보고자 했다."

전해수 평론가가 두 번째 평론집 '비평의 시그널'(포지션·사진)을 펴냈다.

지난 2013년 첫 평론집을 묶어낸 지 5년 만에 발간한 평론집으로 모두 55편의 글이 담겨 있다. 저자는 비평의 행위를 '텍스트와의 대화'로 규정하며 그 자체를 '시그널'로 명명한다.

오랫동안 시인을 꿈꾸다 비평으로 전환한 저자의 글은 정치하고 미려하다. 특유의 시적인 문체는 오랫동안 시라는 텍스트를 붙들고 정진해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책은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에다의 세계'에는 오규원·이승훈·함태수·이재훈 시인 등의 시에 대한 평이 담겨 있다.

2부 '시인 혹은 필경사'와 3부 '영혼의 시학'에는 각각 홍애나·서안나·김범은·

정영 등의 해설과, 허영자·김병호·고영민·이혜순 등의 시에 대한 비평의 글이 수록돼 있다.

마지막으로 4부 '상실의 언어'는 '문학의

예술성과 예술의 문학성-밥 딜런, 음악과 시', '비의 적(比敵) 풍경 혹은 삶의 비의성을 찾아서' 등의 글이 담겨 있다.

전 비평가는 "돌아보면 함께 '대화'를 나누는 텍스트들은 아름답고 간절했다. 간절하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며 "아름다운은 기교에서 오지 않고 진정성에서 온다. 진정성이 없는 텍스트는 결코 간절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밝혔다.

한편 전 비평가는 동국대 국문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05년 '문학산'에 당선돼 평론활동을 시작했다. '1950년대 시와 전통주의'와 평론집 '목어와 낙타'를 펴냈으며 현재 숭실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스크린으로 만나는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

14일 '삭은 스크린'

광주문화재단은 'SAC on Screen' 6월 프로그램으로 '김선욱 피아노 리사이틀'을 상영한다. 14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이번 영상은 지난 2016년 7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공연 실황이다. 김선욱은 '모차르트 환상곡 4번조, K.397', '슈베르트 피아노소나타 18번 G장조, D.894 Op.78'를 들려준다.

김선욱은 2006년 리즈 콩쿠르에서 대회 40년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아시아 출신 우승자로 주목 받았고 경연 결승에서

연주한 마크 엘더 & 할레 오케스트라와의 브람스 '피아노협주곡 1번'이 비평계의 극찬을 얻으며 본격적인 프로 연주자 생활을 시작했다. 런던 심포니,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했으며 독주자로서도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한편 'SAC on Screen'은 예술의전당 무대에서 펼쳐지는 우수 공연 콘텐츠를 영상을 통해 보고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다음 상영작은 발레 '지젤'(28일)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670-793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피아니스트 김선욱

ACC 전문가 과정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 ACI)이 주관하는 2018년 상반기 'ACC 전문인력 아카데미'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시테크니션, 시노그래퍼, 어린이문화콘텐츠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먼저 '전시 테크니션' 과정이 여름방학을 맞아 단기 집중 기초과정으로 7월 3일부터 4주 동안 운영되며 17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받고 있다. 또한 '시노그래퍼(Scenographer)' 교육 수강생을 1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어린이문화콘텐츠기획자' 분야는 심화과정의 수강생을 1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문의 062-601-4026. /전은재 기자 ej6621@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